



즉시 배포용: 2019 년 1 월 24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 CUOMO 주지사, 2020 행정부 예산에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를 엄중 단속하는 제정안 발표

### *고의로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의 형사 처벌 강화*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첫 2020 행정부 예산의 일환으로,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를 엄중 단속하는 새로운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제정안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다른 형태의 착취 행위 처벌과 긴밀히 연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언제나 근로자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는 근로자가 힘들게 일해 번 임금을 도둑질하는 파렴치한 고용주들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정부는 이들에게 속은 근로자들의 임금 수백만 달러를 되찾았으며, 해당 제정안으로 부당하게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현재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을 자행한 고용주만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소 건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번 제정안으로 노동법을 개정하여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를 형사 처벌합니다. 임금 체불액 1,000 달러 미만인 경우 B 급 경범죄로, 50,000 달러 이상인 경우 B 급 중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해당 제정안은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 검사 및 법무장관이 응당 기소해야 할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형사 소추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기존 노동법에 의거하여 사법집행을 계속하나, 형사 처벌이 강화되어 지방 검사가 임금 체불을 범죄로 기소할 확률이 높고 자발적으로 사건을 맡으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임금 체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 고용주를 제지하고 향후 임금 체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Labor)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덕분에, 주정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 당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한 뉴욕주의 명성에 기반합니다.”

뉴욕주는 고용주의 임금 체불로 근로자에게 반환된 임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목도해 왔습니다. 2018 년,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약 3,500 만 달러를 되찾아 임금 체불 및 공공 근로 위반 피해를 입은 근로자 35,000 여 명에게 돌려주었습니다. 2011 년 이래로, DOL 은 임금 체불액 2 억 8,000 만 달러를 되찾았으며, 임금 체불 및 공공 근로 위반 피해를 입은 근로자 250,000 명에게 이를 돌려주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